

개 회 사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에 어느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할교구의 성취는 곧바로 종단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함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은 갑오년 새해를 맞으며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종단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제34대 총무원이 종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정하고 세부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미진한 점은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직할교구는 결계포살과 주지품신 등 기본 종무행정에서 점차 능동적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구위상 강화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종단이 나아갈 길의 맨 앞을 직할교구가 걸어간다는 것이며, 진정한 교구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과 강화지역 등 지역별 조계종주지협의회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사찰운영에 신도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사찰은 매

년 종단차원에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도록 우리 종단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1사찰 1봉사단체 1사회시설’이 저변에 확대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더욱 활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할교구가 이러한 의미있는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지방교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무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주지스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갖는 소중한 경험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이 되기를 바라며 직할교구 또한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어린이포교와 지역사회복지 활동 등, 직할교구 사업에 늘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스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노력이 이룬 성취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총회의장 자 승